

지속가능 부문 - 파나소닉코리아(주)

지속적인 사회공헌, 거래처와의 공존공영 정신 실천



글로벌 가전 브랜드 파나소닉코리아(주) (대표 노윤하)는 기업 이념인 '공존공영' 정신을 바탕으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CSV (Creating Shared Value·공유가치 창출)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노윤하 대표

년과 대학생을 위한 각종 콘테스트나 후원사업, 올해로 19차를 맞이한 CSR 투어, 예코활동, 봉사활동뿐 아니라 사회문제와 연계한 국민구강건강, 국민효도 등의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 후원 사업에도 앞장서 골프 선수 박인비, 유소연 등 프로골프 선수의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으며 1988년 캔거리 올림픽부터 공식 파트너십(TOP) 후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내년 개최될 평창 겨울올림픽을 비롯해 2020년 도쿄 여름올림픽에도 참여해 스포츠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식 기자 mskim@donga.com

지속가능 부문 - (주)메이커스테크놀로지

'창의인재 양성-교육기회 균등' 앞장서는 사회적 기업



(주) 메이커스테크놀로지(대표 조태연)는 국가 미래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3D프린팅 및 소프트웨어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주 사업으로 2014년에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다. 메이커스테크놀로지는 전국 지역별 학내망 전문업체를 통해 자체 개발한 교육용 3D 프린터와 소프트웨어 교육을 특화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실습 톨킷, 교재 등을 각급 학교 및 교육단체에 보급하는 전문 교육기업이기도 하다.



조태연 대표

현재 전국 1500여 개 학교에서 활용중인 3D프린팅 및 아두이노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안드로이드 앱 개발, 로봇 교육 프로그램 등 자유학기제 및 방과후 교육 전문 프로그램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인 가운데, 메이커스테크놀로지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

품질혁신 부문 - 가보(주)

품질혁신-인재경영으로 전력 산업의 선진화 이끌어



가보(주) (대표 오승원)는 발전, 송전, 변전 분야를 비롯한 전력 산업 전반에 걸친 보호시스템과 전력감시 제어, 태양광발전 감시, 원격조제, 수질원격감시 등 제어 및 감시시스템 분야의 전문 업체다. 전력 산업 분야의 전문 구성원으로서 다년간에 걸친 경험과 기술노하우 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설계부터 제작, 엔지니어링까지 포괄적인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3년 설립 이후 한국전력공사, 한



오승원 대표

리적인 의사결정을 중시해왔다. 이를 통해 고객은 물론이고 임직원과 원원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산업인력관리공단(Best HRD) 인증 취득을 통해 인적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인재 육성-개발에 진력해왔으며, 산학협력을 통해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청년 실업 해소에도 적극 기여해왔다. 또한 소외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왔으며, 그 결과 2016년 나눔문화 확산 유공자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 표창까지 받을 수 있었다.

태현지 기자 nadi11@donga.com

품질혁신 부문 - 경인금속열처리

최상의 품질로 국내외서 인정받는 열처리 전문기업



경인금속열처리(대표 이종득)는 스테인리스 특수강, 주물, 구조물 등의 열처리 전문업체다. 1997년 6월 '모든 공업의 기초는 기계공업에 있고, 기계공업의 기초가 되는 것은 금속 열처리에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동사는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경인금속열처리는 열처리 분야의 전문적인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련 국제 규격 및 표준에 따라 엄격하게 설비검교정 및 온도균일도검사(Temperature



이종득 대표

Uniformity Survey)를 시행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작업 공정에 따른 결과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 우수업체의 인증을 획득하고 있으며 가공 설비를 다양 보유해 '원라인 시스템(One-Line System)을 구축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가공 전문회사'라는 평을 듣고 있다. 1999년 국내 최초의 슈퍼 듀플렉스 열처리 개발을 시작으로 2009년 ISO9001:2008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2015년 열처리 부문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MNA 4300) 등을 취득하며 꾸준한 품질 혁신에 진력해온 동사는 향후에도 철도, 선박, 담수화 설비 및 원자력·화학·수력 발전소 등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화테크윈, 두산중공업 등 국내 대기업과의 협업은 물론이고 국내외 전시에 꾸준히 참여하며 열처리 기술의 선진화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정상연 기자 j301301@donga.com

기술혁신 부문 - (주)우림이앤씨

책임경영과 공정관리로 종합건설사로 도약한다



(주)우림이앤씨(대표 박운백)는 서울 서초구에 본사를 두고 기계설비 공사업, 가스시설 시공업, 토목공사업,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전문 건설업체로 2004년 설립되었다. 2017년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금호산업 등의 국내 공공기관 및 종합건설사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림이앤씨는 종합 건설사로서의 도약을 목표로 지속적



박운백 대표

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최근 우림이앤씨는 주요 사업으로 화성동탄 집단지너지 시설 건설, 춘천 집단지너지사업 건설공사,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 제2공구 건설공사 등을 하고 있으며 해외 공사로는 사우디 아라비아 MARAFIQ IWPP 및 필리핀 MASINLOC Power Plant Expansion 공사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우림이앤씨는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시공 경력자 및 해외 공사 경력자 등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 어떤 공사라도 탁월한 기술력을 발휘해 시공 완료하고 있다. 설립 이래 매년 팔복할 만한 매출 증대를 일궈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원가관리와 시공 기술력·노하우로 건설업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전문 건설업체의 리더가 되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편 우림이앤씨의 박운백 대표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경영을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공정 관리를 우림이앤씨의 지속가능한 성장세를 이끌어오고 있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

지속가능 부문 - 건영산업(주)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선도자



건영산업(주) (대표 유덕술, 유영술)은 자동차 부품 생산을 목표로 1973년 건영산업이라는 개인 기업으로 출발해 이후 2004년 1월 법인으로 전환된 기술 기업이다. 자동차용 방진고무, 조향장치, 제동장치 관련 부품을 중심으로 생산하는 건영산업은 국내는 물론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외 여타 지역으로도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건영산업의 임직원은 '신뢰와 믿음'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최저원가로 최상의



유덕술 대표



유영술 대표

현재 사회양극화, 고령화, 실업률 상승 등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동사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지며 장년층 고용창출(구성비 54%) 및 청년층 고용창출(금년 7명 신규 채용-구성비 약 15%)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유덕술 대표는 "앞으로도 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밝혔다.

정상연 기자 j301301@donga.com

품질혁신 부문 - (주)홍성브레이크

세계적인 마찰재 전문기업 30여 개국에 브레이크 수출



최고 품질의 마찰재 전문기업은 목표 1988년 설립된 (주)홍성브레이크(대표 이성목)는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부문 최초로 KSEI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을 뿐 아니라 11년 연속 동 부문 부동의 1위를 기록해 국내 마찰재 시장의 역사를 새로 쓰며 자동차 부품시장의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국내 제조사 대부분이 외국의 배합 원재료나 기술 제휴사에서 공급받는



이성목 대표

현재를 사용하는 현실에서 홍성브레이크는 마찰재 배합비 설계에 대한 선진 기술을 자체 보유해 2001년 QS-9000 인증 이후 KS 인증 및 ISO/TS 16949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우수 자본재 개발 부문에서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수 상함으로써 R&D 부문의 우수성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다.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에 수출 중인

태현지 기자 nadi11@donga.com

품질혁신 부문 - 스타키그룹 조은소리보청기

세계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 담은 J-Class보청기 선보여



미국 최대의 청각 전문기업인 Starkey Hearing Technologies Inc.의 한국지사 1996년 창립된 스타키그룹(회장 심상돈)은 좋은 제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국내 난청 해결과 소외된 이웃 및 청각장애인들의 복지 개선을 선도해왔다. 그 결과 국내 보청기업계에서 독보적인 시장점유율 1위, 고객만족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스타키그룹의 자회사인 조은소리보청기(대표 문상철)의 J-class는 수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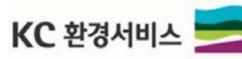
문상철 대표

은 난청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혁신적인 청각 테크놀로지에 의해 탄생한 제품으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어 보다 선명하고 깨끗한 음질을 제공한다. 획기적인 기능의 시너지 플랫폼과 Acuity OS를 사용해 보청기의 격을 한 층더 높이고 고객의 다양한 사용 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피팅 모드를 구현한다. 고객지향형 CS경영을 표방하는 조은소리의 경영철학은 '책임감'이다. 우선 고객들에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업계 최초로 '보청기 생산·수리 책임자 제도'를 도입했다. '개인별 맞춤형 제작 실명제'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제작부터 출고까지 모든 공정의 담당자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품질을 책임지게끔 독려한다. 문상철 대표는 "보청기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의 매개체"라며 "올해에도 세계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담은 최고의 보청기로 고객 감동을 선도하겠다"고 전했다.

이학선 기자 suni12@donga.com

기술혁신 부문 - 케이씨환경서비스(주)

산업폐기물 안전한 재처리로 지구환경을 지킨다



케이씨(KC)환경서비스(주) (대표 이강욱)는 2000년 회사 설립 이래로 적법하고 안전한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1년 365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케이씨환경서비스는 전담 여수시 월래동과 화지동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북 전주, 경남 창원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처리방식과 설비용량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고 이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증기(스팀)로 전환해 사업장 인근 고객에게 관로를 통해



이강욱 대표

공급하거나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국내에서 폐기물은 크게 생활계와 사업장계로 구분된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에 비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유독 물질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케이씨환경서비스 전주사업부에서는 폐기물을 고품질로(SRF·Solid Refuse Fuel)로 재활용하고 창원사업부에서는 폐수 폐유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열원을 폐기물을 소각해서 얻고 있다. 단순한 폐기물 소각이 아닌 Waste to Energy와 Resource Recovery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케이씨환경서비스는 국내 네트워킹 확장뿐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주회사인 케이씨(KC)그린홀딩스의 환경서비스 부문 자회사였던 케이씨환경서비스는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전주, 창원의 사업장과 2016년 12월 31일 합병을 실시했다.

김민식 기자 mskim@donga.com

기술혁신 부문 - (주)한국랙스

최고의 랙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물류관리 이끌어



1988년 창업자인 윤영식 회장에 의해 설립된 (주)한국랙스(대표 윤선미)는 창고나 보관 공간을 채워적재하는 랙 시스템에서 현재는 물류센터나 대형 창고의 물류시스템을 설계, 시공하는 전문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모바일 랙의 최초 개발자인 윤 회장은 일반 랙 시스템에 만족하지 않고, 움직이는 랙인 전동 팔레트랙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는 이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설계, 제작하는 회사로 알려진 한국랙



윤선미 대표

스는 한 치의 오차 없는 시공으로 명성을 쌓았다. 현재 한국랙스를 이끌고 있는 윤선미 대표는 창업자인 윤 회장의 장녀로, 물류업계에서 거의 유일한 여성 CEO로 알려져 있다. 윤 대표는 윤 회장의 개발 성과인 전동 팔레트랙과 버려진 공간까지도 랙 시스템으로 변화시킨 메저린 플로어를 메인 제품으로 판매, 시공함으로써 그 경영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지난 30년 간 쌓아온 기술 노하우와 생산 현장에 분포되어 있는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은 한국랙스의 기술적 성취를 그대로 보여준다. 대부분의 제품은 수작업으로 이뤄지며 제품의 품질만큼은 국내 최고를 자부한다. 이는 수십 개에 달하는 특허와 인증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윤 대표는 "효율적인 물류 관리로 기업 경쟁력을 찾아주는 데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해나갈 것"이라며 자신감 드러냈다.

이학선 기자 suni12@donga.com